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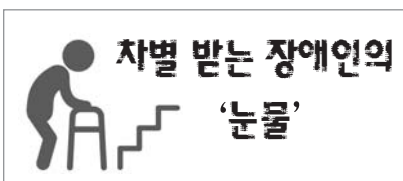
아직도 폭행·감금 학대 받는 장애인 많다

장애인에 대한 국민적 배려와 이해,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1981년 제정된 '장애인의 날'이 오는 20일로 38주년을 맞는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한구석에 움츠러 외면 받는 장애인들의 현실은 비참하기만 하다.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행위를 근절하는 사회 인식, 그들을 배려하는 사회 전반에 대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지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세 차례에 걸쳐 지역내 장애인들이 처한 현주소와 개선방향을 모색해본다.



(상)-사회적 편견 여전

장애인 300만 시대를 맞아 광주지역에 등록된 장애인 수만 해도 6만 9,269명에 이른다.

장애인들은 수십년째 '장애인 평등 보장'을 외치고 있지만 이들을 향한 따가운 시선과 차별은 여전히 남아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 10년이 지났지만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는 줄지않고 빈번히 발생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년째 '유명무실' 광주인권위 장애차별 사건 3년새 122건 접수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최근 3년간 '장애 차별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첫해 2008년 585건이 접수됐다.

이후 2015년 1,147건, 2016년 1,511건, 2017년 1,113건이다. 광주사무소에도 최근 3년간 122건이 접수됐다. 또 지난해 10월 개소한 광주시장에 인권익옹호기관에도 현재까지 97건이 접수됐다.

폭행·감금 등 신체적 학대가 가장 많았고 수급비 횡령·부당이득

등 경제적 학대, 차별 순이었다.

장애인들의 차별, 학대가 잇따르면서 장애인들도 자신들의 권의 보호를 위해 나섰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16개 지부 1·2급 시각장애인 963명은 지난해 대형 온라인 쇼핑몰 3곳을 상대로 장애인 차별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을 냈다.

이들은 "기업들이 웹사이트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에도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을 인식하지 못하는 현실을 규탄한다"며 "이번 소송으로 장애인, 고령자 등 전보이용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디지털 정보이용에서 발생한 지식 격차 및 차별을 해소하고 철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의 불편', '장애인을 낮게보는 시민주의식'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현실이다.

박찬동 광주시장에 인권익옹호기관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해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가 늘어나고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상당 건수도 급증하는 추세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오피스텔 17층서 20대 남녀 추락사 무안경찰, 부검통해 사고경위 조사

오피스텔에서 20대 남녀가 잇따라 추락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무안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41분께 전남 무안군 삼합읍 한 오피스텔 17층에서 A씨(20·여)와 남자친구인 B씨(22)가 1층 화단으로 떨어져 숨졌다.

A씨는 이날 자신의 물건을 가져가려고 가족, 지인과 함께 B씨의 오피스텔을 찾았다.

A씨 일행은 경찰조사에서 "문밖에서 20여분간 기다리다가 방 안에서 두 사람이 다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려고 했으나 안에서 열어주지 않아 경찰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쿵하는 소리가 나더니 여성이 화단에 쓰러져 있었다"는 주민의 말에 1층에서 숨진 A씨를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

A씨의 몸에서는 추락으로 인한 부상 외에 다른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B씨는 경찰이 A씨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하는 사이 3분여 만에 17층에서 추락했다.

이 오피스텔은 별도로 내부에 발코니가 없으며 위·아래로 나뉜 창문만 설치돼 있다. 아래쪽 창문은 성인이 통과할 수 없는 크기이며 창대와 비슷한 높이에 위쪽 창문이 있다.

경찰은 창대 위 창문이 열려 있었던 점, 창문 틈이 성인 한 명이 겨우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로 비좁았던 점 등을 토대로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무안=박주현 기자

교육 민관 거버넌스 기구 설립 제안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주최 토론회

광주시교육감 산하 독립기구로 교육과 관련해 시민참여를 통한 민관 협치 역할을 하는 기구를 설립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강수 광주교육정책연구소장은 18일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주최로 광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실에서 열린 '민관 교육 협치(거버넌스) 확대를 위한 시민토론회'에서 광주시교육감 산하 독립기구로 가장 '광주교육시민참여단' (이하 참여단) 설립을 제안했다.

토론회를 참석한 이 소장은 "광주시교육청이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단순한 의견 수렴과 자문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교육 주체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상시적인 교육

자치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참여단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 산하의 독립기구로 운영할 것을 제시했다. 또 학부모 교육·노사협력·시민참여 등 시민적 공론이 필요한 의제들에 대해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평가까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훈 광주시교육청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은 "교육 거버넌스를 위해 '광화문 1번가'나 '국민청원'과 같이 상시적인 수렴을 위해 민주적 절차를 지원할 사무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광주교육 시민참여단의 구성에서 시민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100인 위원회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황애란 기자



재활용품 수거 행사

18일 광주시 동구청 광장에서 열린 '재활용품 수거 행사'에서 동구새마을회원들이 헌옷, 가방, 이불 등의 재활용품을 수거해 무게를 측정하고 있다. 이날 수거한 재활용품 판매 수익금은 관내 불우이웃을 돕는데 쓰일 예정이다.

동물단체, 햄스터 학대 영상 공유 고교생 고발

동물단체가 햄스터를 학대해 죽이고 동영상까지 공유한 누리꾼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18일 동물권단체 케어에 따르면 햄스터를 잔혹하게 죽이는 영상이 전날 오후 카카오톡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일부 누리꾼 사이에서 퍼졌

다. 케어는 해당 영상을 제작, 유포한 누리꾼 지적사항을 확보했다.

케어는 전남에 사는 고등학생으로 알려진 누리꾼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케어 학생은 친구에게 선물로 받은 햄스터를 다른 친구들을 불러 모은 뒤 돌을

던지고 발로 치는 등 학대 후 죽인 것으로 알려졌다.

끔찍한 장면을 촬영한 영상에는 웃고 떠드는 학생의 목소리도 담겼다.

케어는 단체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학대자가 어린 학생일지라도, 그 대상이 작은 햄스터 한 마리일지라도 엄중히 처벌 받아야 한다"며 "해당 학교에는 동물권 교육을 요구하겠다"고 전했다. /김종찬 기자

광주 일선학교 '과학의 달' 행사 풍성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광주지역 대학과 일선학교에서 다양한 과학축제를 마련했다.

정암초등학교는 오는 19일 전교생이 참여하는 과학 축제인 '2018 정암 과학 축제'를 개최한다. '2018 정암 과학 축제'는 전교생이 여러 과학 기술을 즐겁게 체험하며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키우고 창의력과 사고력, 탐구력을 향상해

미래 과학 인재 키우기 위해 마련했다. GIST 고등과학기술연구소도 지난 17일 광주 첨단지역 초등학교들을 초청해 '첨단지역 초등학교와 함께하는 과학세상' 행사를 개최했다. 2007년부터 매년 4월 과학의 달을 맞이해 시작된 본 행사는 초등학교들에게 빛과 레이저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황애란 기자

"담배 빨리 줘" 주민 폭행

○...가게 주인이 담배를 나눠주지 않자 주민이 폭행한 30대 쥐깨기 경찰서 행.

○...18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문 모씨(34)는 지난 18일 새벽 0시 15분께 만취상태로 서구 화정동 한 가게에서 담배를 구입했는데 주인 정 모씨(37)가 담배를 부린다며 먹살을 잡는 등 폭행한 것.

○...이를 조사하던 경찰은 "빨리 계산해달라고 말하면 될 것을 주먹까지 휘둘러서야 되겠냐"며 고개를 절레절레.

/김종찬 기자

영광 전원 주택 (급매)

전원주택(영광읍) 광주에서 30분!!

- 즉시입주 가능 (최근리모델링 전체 완료)
- 텃밭(10평)
- 마당전체 잔디 (고급파라솔 설치)
- 토지 151평 건물 42평
- (32평 아파트형, 창고 17평)

◆ 시세가 **1억3천** 매매가 9천 7백

주인직매 010-6670-9800

신축원룸매매

· 월곡동 신축건물 (최고급) (월곡시장 2분, 고려인마을 1분)

· 총 4층건물 (원룸 12개, 투룸 2개)

▶ 매가 8억 5천만

① 산정동 (1층코너 상가) (원룸 15개) (합16개) 월세 500만 ▶ 매가 8억 3천

② 산정공원바로앞 (코너) 1층상가(2개) 원룸(12개) 4층 (최고급주택) 월세 550만 ▶ 매가 9억 5천만

③ 전대정문 2분 (원, 투룸 18개) 월수익 800만 ▶ 매가 13억 5천만

010-6670-9800

법률 경매

① 광산구 신창동 (월룸빌딩) 토 55평, 건 120평 광주보건대 2분 ▶ 감평가 3억 8천 → 최저가 2억 6천 7백

② 화순 도곡면 (무인텔) 토 3,289평, 건 3,278평 객실 32개 (월수익 5,000만 예상) ▶ 감평가 39억 → 최저가 1억 3억 8천

③ 서구 쌍촌동 (3층상가주택) 토 90평, 건 107평 감평가 6억 → 최저가 6억

④ 서구 내방동 4층 상가건물 토 77평, 건 123평 ▶ 감평가 5억 3천 → 최저가 5억 3천

⑤ 북구 문흥동 (3층원룸) 토 57평, 건 101평 감평가 3억 6천 → 최저가 3억 6천

⑥ 동구 학동 (3층원룸) 토 81평, 건 101평 감평가 3억 3천 → 최저가 3억 3천

⑦ 상무지구 세정아울렛 (3층) 감평가 3억 → 최저가 2억 1천

⑧ 서구 금호동 (7층중7층상가) 감평가 6억 → 최저가 4억 2천

⑨ 북구 용봉동 (12층중7층상가) 감평가 6억 7천 → 최저가 3억 7천

⑩ 남구 주월동 (마트) 토 108평, 건 83평 감평가 14억 6천 → 최저가 14억 6천

⑪ 서구 매월동 (영례식당) 토 3,302평, 건 3,955평 감평가 2백 70억 → 최저가 190억

⑫ 서구 풍암동 (주책) 토지 33평, 건물 17평 감평가 9천만 → 최저가 6천 3백

⑬ 광산구 월계동 (2층 주택) 토지 68평, 건물 75평 감평가 2억 5천 → 최저가 2억 5천

⑭ 남구 주월동 (주택) 토지 40평, 건물 42평 감평가 1억 → 최저가 1억

⑮ 북구 은암동 (토 37평, 건 26평) 감평가 1억 → 최저가 1억

⑯ 광산구 월전동 1,999평 22,490평 감평가 68억 → 최저가 48억

⑰ 광산구 월전동 (공평) 토 2,220평, 건 1,256평 감평가 65억 → 최저가 45억

⑱ 서구 풍암동 (농지) 1,300평 감평가 699천 → 초지 1가 499천

⑲ 광산구 박호동 (임야) 13,199평 감평가 1억 9천 → 최저가 4천 4백

⑳ 서구 풍암동 (농지) 1,300평 감평가 699천 → 최저가 499천

010-7384-7800 010-6670-9800

경매교육

(4월초 개강)

① 기초실전반 (경매기초 + 기본실전)

② 실전투자반 (기초+실전-매매까지)

③ 무로반운영 - (오전오후)

기초이론부터 ~ 실전투자

리모델링, 매매까지 (원스톱강의)

직원구함!

1) 경매 배우면서 근무할분

2) 경매 컨설팅하면서 수익내실분

평생회원 - 책상, 컴퓨터, 교육 (무료제공)

010-6670-9800